**1.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최건호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과 문돌이였는데 내용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맘에 안 들어 중간에 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 했었습니다. 지금은 싸피에서 2학기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싸피 오기 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졸업 후 싸피에 오기 전에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2년반정도 일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도 다뤄보고 한동안은 바이오 데이터를 많이 다뤘습니다.

세포 병리학 데이터 자동 염색, 뇌파와 뇌 MRI를 이용한 간질발작 병변 위치 찾는 태스크, 3D 광학 현미경 데이터를 이용한 세포 분류, 간섭 노이즈 제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논문도 몇편 참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일은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젝트였습니다.

**3. 책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책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 하면서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파이토치를 이용해 튜토리얼 형식으로 정리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코드를 깃헙에 올리고 커뮤니티에 공유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보고 책으로 만들어보자고 연락이 와서 썼었습니다.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2년만에 다 써서 작년 6월쯤 나왔습니다.

제목은 파이토치 첫걸음이고 저번 주에 1쇄가 소진되어 2쇄를 찍는다고 합니다 ☺

책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한적도 있는데 해당 강의자료와 실습 코드가 제 깃헙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4. AI 명세서 난이도가 좀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의도 된 것인가요?**

넵 어느 정도 의도된 겁니다. 제가 공부 했던 내용들과 여기저기 면접도 봐보고 여러 회사에서 일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취업이 되겠다 하는 수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하기에는 할게 좀 많아서 어렵다고 느끼시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6주안에 모든걸 이해하다가 아닌 AI는 이런거구나~ 남은 기간과 심화 프로젝트때는 이런걸 좀 더 배워보고 실제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주 안에 모든걸 이해하고 구현까지 해내시면 저랑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 접한 분야라 어렵고 난감 할텐데 열심히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지금 명세서 정도면 실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명세서는 AI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실무에 가면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정제부터 시작해 baseline 모델 설정과 개선, 성능 비교 등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주니어 개발자로써 이미 코드도 공개되어 있고 성능이 검증된 모델들을 이용해 실험을 돌릴 수 있다면 실무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사실 실무에 가면 데이터 노가다를 엄청 하게 되실겁니다. 저는 한달 내내 데이터 정제만 한적도 있습니다ㅋㅋ

**6. AI 공부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면?**

공부의 목적이 취업이라면 취업공고를 보고 거기에 맞춰 공부하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요건을 맞출 필요는 없고, 필수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뽑아주면 일 하면서 공부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면 뽑아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이터사이언스 인터뷰 질문 모음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면접 때 뭘 물어보는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부 목적이 순수한 호기심이라면 유명한 대학 강의(스탠포드 CS231n, 스탠포드 CS224n, 버클리 CS294 등)의 영상이나 커리큘럼을 보고 대략적인 공부 순서를 정한 다음 각 순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링, 블로그, 강의, 책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개발자니까 이해했다는 걸 확인하려면 코드를 짜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근데 구현 레벨을 막 c++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아도 되고 파이썬 레벨이면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 깃헙에 꾸준히 올렸었습니다.

처음에는 Gradient Descent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찜찜해 임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손으로 계산해보고 코드 결과랑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봤었습니다. 이 하나의 개념만 이해하는데 1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속도는 느렸지만 까먹지는 않더라구요. 우선은 이렇게 쭉쭉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대충 넘어갔구나 하는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선형대수와 확률론에 대해 공부해야 할 때가 옵니다. 저는 문돌이 출신이라 공학수학 이런걸 못 들어서 한동안은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선형대수 수업도 듣고 확률 수업도 공개된 수업 찾아서 듣고 했었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프레임워크가 다 해주니까 처음부터 이걸 할 필요는 없고, 공부를 하다 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할 때 하시면 됩니다.